

밤 9시만 되면... 대리운전 호출 전쟁

식당·유형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 조기 마감 손님 “대리요금 기본가격 최소 두배는 불러야 잡혀” 업계 “운전기사 수입 급감... 호출 피크시간에 올인”

“요즘에는 평소보다 요금을 두배가량 올려야 대리기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송모(32)씨는 최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진땀을 흘렸다. 제주시 이도2동 근처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을 한 뒤 오후 9시쯤 휴대폰 어플을 통해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도무지 콜이 잡히지 않았고, 이에 송씨는 대리 요금을 두세번 올린 뒤에야 겨우 대리기사의 콜을 받을 수 있었다.

송씨는 “코로나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고 나서 대리운

전 기사를 부르기 어려워졌다”면서 “기존에는 1만2000원의 요금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요금을 2만5000원까지 올리고 나서야 콜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모임이 잦은 연초를 맞아 밤마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강화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식당과 술집의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도로변으로 나온 뒤 택시잡기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특정시간에 콜이 몰리고 있다. 대리운전인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콜이 집중되면서 웃돈을 주지 않고선 콜을 잡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택시인 경우도 승객이 몰리는 특정시간대엔 거리에 나와도 빈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인듯 보면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가 방역 강화 조치 이후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실제 특정시간이 지나면 승객이 뜰 오후 10~11시가 되면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20~30% 떨어진 상황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영업시간 제

한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짧은거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3년차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밤샘 일을 하면 하루에 평균 7~8건의 호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루 2~3건에 불과해 수입이 반토막난 상황”이라며 “한번 잡는 콜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깝고 높은 요금의 호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시간대에만 손님이 몰리고 심야시간대 손님 거의 없어 보통 오후 11시엔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면서 “대리운전을 통해 예정처럼 수입을 올리기 힘든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비싼 요금의 호출을 선택하고 있다”고 곤혹스런 업계의 상황을 전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7일 금요일 음 12월 5일 (12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10%
10%	성산	20%
0%	고산	30%
0%	서귀포	20%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3/10°C
모레	구름 많음	5/10°C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구름 많음

제주에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C, 낮 최고기온은 8~11°C로 전망된다. 내린 눈이 얼어 등산로나 도로 등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나, 등산객 안전사고와 차간 거리 유지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7:39	달뜨기 11:09
해질녘 17:41	달지기 22:40
물때 만조 01:22	간조 07:59
14:22	20:58

감기지수	자외선지수
높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제2공항 백지화가 정답” 비상도민회의 어제 성명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선공약은 제2공항 백지화가 정답이다. 제2공항 백지화 해방 놓는 구만설 권한대행의 경기 망동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맞춰 최근 제주도 각 정당에 보낸 제주 현안과 정책 제안 중 제2공항 정상 추진이 핵심과제 1번으로 등재돼 있다”며 “도민 사회의 반대 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도 제주도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활환경 부하를 개선하겠다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제주도가 정작 과잉 관광에 따른 환경 부하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선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몰상식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김도영기자



겨울에 찍는 유채밭 '컷' 6일 서귀포시 성산읍 유채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제주의 겨울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일교차 최대 7°C... 건강 주의하세요”

당분간 제주지역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된다.

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까지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겠다. 하지만 기온은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4°C, 낮 최고기온은 8~11°C,

8일 아침 최저기온은 3~5°C, 낮 최고기온은 9~12°C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5~7°C 이상 크게 나겠다.

아울러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지난 5일 내린 눈이 얼어 등산로나 도로(5·16도로, 1100도로) 등 미끄

러운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제주도남쪽바깥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7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 교육자치 발전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교육의원 출마자격 확대·중선거구 도입”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도민들의 엇갈린 평가 속 개선·발전방안으로 ‘피선거자격 확대’와 ‘중선거구제 도입’이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6일 공개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헌법재판소는 최근 교육의원 임후보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의 요구는 교육전문직 보장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6%가 동의했다.

반면 “지난 2018년 선거에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1인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결과를 놓고 교육위원제를 개선보다는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선 응답자의 43.5%가 동의, 28.2%가

부동의 의견을 보였다. 연구진은 2018년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데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은 제도의 존재 이유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 결과를 기점으로 일단락됐으므로 앞으로 교육의원제 논의의 방향은 선거제도 개선 및 합리화에 우선 초점을 뒤야함을 피력했다. 발전방안으로는 ‘피선거 자격 완화·확대’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으로 제한된 출마 자격 요건과 관련해 연구진은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 및 학부모단체 대표자 활동 경력을 추가하고, 현직 교원 당선시 휴직 허용 방안 등을 내놓았다.

선거 방식은 제주시·서귀포시 각 1개 선거구로 확정해 다득표 순으로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최재해감사원장님! 제주도민의 바른 여론을 똑바로 들으세요.> 감사원 “제주아트플랫폼” 감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상권몰락으로 철거계획한 건축물을 계약금2원에 위약금20억원, 100억원매입

감사원은 작년 12월 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재밋섬건물 매입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의회에 회신해 왔다. 다시한번 부패하고 무능한 감사원의 민낯을 확인 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은 왜 존립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않을 수없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하는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의미를 부여 한다.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감사원관계자들에게 역사의 냉혹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 경고 한다.

제주경실련은 2018년 8월 22일, 2019년 10월 24일, 2019년 11월27일, 2020년 9월 18일 4차례 걸쳐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터무니없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충 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써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 그래서 재밋섬 건물주는 13억원을 들여서 건물철거한 후 지하4층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해서 2011년 9월 경매최저가격이 24 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엄밀하게 시장가치를 반영 하지 않고, 정책결정권자들의 검은 뒷거래가 의심 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했는지 의문이다.

제주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음 5가지를 주장하며 올바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1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한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상식에 반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며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지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왜 야당 도지사가 자행한 부정부패사건에 침묵하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올바른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길 당부한다.
5. 감사원장은 이번 “제주아트플랫폼” 감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직자가 로비 등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직무감찰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 제주경실련 회원과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http://www.jejungo.com T(064)726-2530

2022년 1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